

친구에게 총을 겨눈 비스마르크

강력한 군비확장으로 이웃 나라와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승리하여 마침내 독일 통일의 위업을 이루고, 철혈재상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비스마르크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하루는 친구와 둘이서 사냥을 갔다.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 사슴 한 마리를 쫓다가 그만 친구가 늪에 빠지고 말았다.

낙엽으로 덮인 늪을 모르고 앞서 뛰어가다가 발을 헛디뎠다.

“빨리 총을 버리고 양팔을 크게 휘젓고 나오게.”

비스마르크는 친구에게 외쳤다.

“물에서 수영하듯이 몸을 앞드리고 어서 빨리 기어나와.”

또다시 외쳤다. 자기마저 늪에 들어간다고 좋은 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물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이렇게 소리칠 수 밖에 없었다.

그 말에 따라 친구는 총도 버리고 양팔을 열심히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팔다리의 기운만 빠질뿐, 몸은 움직일수록 진흙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갔다.

비스마르크는 총대를 한 손으로 들고 뚫어 보았으나 거리가 미치지 못하자 주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긴 막대를 발견할 수가 없어 당황하고만 있는 사이에 친구는 이제 목만 겨우 남은 상태였다.

그뿐아니라 이미 기진맥진한 친구는 고개를 옆으로 떨군채 눈마저 감고 있어 살아나갈 의욕을 포기한 것 같았다.

이때 비스마르크는 비상한 기지를 발휘하였다. 친구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다. 친구가 겨우 실눈을 뜨고 비스마르크를 바라보고 있을 때

“야, 이 못난 놈아! 네가 아무리 못났기로서니 겨우 늪에 빠져 죽고 만다는 말이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너를 총으로 쏘아 죽이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자기 총에다 실탄을 재어 넣고 친구를 향해 한 눈을 감은 채 가늠구멍과 가늠쇠를 맞추어 겨누었다.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친구는 죽고 마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탈진상태로 살기조차 포기하는 듯 하던 친구는 비스마르크가 자기를 향해 총을 겨누는 자세를 보고는 갑자기 두 눈을 부릅뜨며 지금까지 없던 모든 힘을 다 쏟아 양팔을 크게 휘두르면서 조금씩 늪 가장자리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본 비스마르크는 한편 자기도 놀라면서 계속 창구를 친구 쪽을 향해

따라가면서 겨누었다.

이렇게 몇 초가 지나자 친구는 늪에서 완전히 기어나와 빈사상태로 늪가에 누워버렸다. 그러나 비스마르크의 응급처치로 잠시 후 친구는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났다.

그런데 죽음 직전의 친구가 어디에서 그런 놀라운 힘이 생겼을까? 그것은 자기를 향한 총구멍을 보는 순간 곧 죽는다는 강박감에 눌려 그같은 무서운 힘이 솟구쳐 나왔던 것이다.

총각을 닮은 긴박한 찰나에는 누구나 초인간적인 힘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비스마르크는 이같이 친구를 향해 총을 겨누는 비정한 촌극을 벌였던 것이다.

매정스럽게 보이는 시늉으로 하마터면 늪 귀신이 될 뻔한 친구의 목숨을 구해 낸 비스마르크의 이러한 비범한 재치가 후일에 철혈재상이라는 별명까지 붙는 역사적 인물이 되게 한 것이다.